대불련 부산 '2023년 1080배 참회기도'

1월 6일, 부산 진흥사 무량수전서
동문 · 대학생 5시간 1080배 참회
불자 대학생 포교 · 봉사활동 다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가 1월 6일 부산 진흥사 무량수전에서 '2023년 계묘년 1080배 참회기도'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장남주, 이하 대불련 부산)가 1월 6일 부산 진흥사 무량수전에서 '2023년 계묘년 1080배 참회기도'를 봉행하고 수행과 포교로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1080배 참회기도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과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전정순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 최은희 前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 장남주 대불련 부산지부장과 대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인제대, 동명대, 대동대, 해양대 등 7개 대학생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입재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과 절 수행 설명 및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절수행에 앞서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과 장상목 지도교수, 대불련 총동문회 선배들이 인사말로 격려했다. 정법 스님은 "절 수행을 통해 먼저 하심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고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수행"이라며 "하심하는 인격과 인내심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은 "절수행을 하는 학생들을 보니 진심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자신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경험을 통해 성공의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정순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은 "오늘 절 수행을 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으며, 최은희 前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은 "과거에 우리들도 절 수행을 했었다. 어려운 수행이지만 성장을 하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대학생들은 1080배 참회기도에서 절수행을 안내하는 영상과 기도문에 맞춰 절을 하기 시작했다. 굳은 결심을 보이며 힘차게 절을 하던 대학생들은 시간이 흐르자 한두 명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를 벗기 시작했고, 법당에 가득 찬 뜨거운 열기로 닫아두었던 법당문까지 열어야 했다. 좌복에 깔아둔 흰 수건에는 땀방울이 떨어졌고 잠시 멈춰서는 학생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멈춰 선 학생들은 이내 선배들의 절 속도에 맞춰 다시 절을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절을 시작한 후 5시간이 넘게 흘렀고 마침내 마지막 1080배를 마치자 학생들은 "해냈다"고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다.

김대원(대동대) 학생은 "지금까지 108배는 해봤지만 1080배는 처음"이라며 "도반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고 이번 한 해 스스로를 이겨내는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도영(동명대) 학생은 "불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기쁘고 2023년에 도전하고픈 계획들이 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남주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요즘 학생들은 지레 겁을먹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다"며 "이번 절수행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2023년 힘찬 출발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절수행을 해낸 우리 모두가 대견하고 2023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인제대, 동명대, 대동대, 해양대 등 7개 대학교 학생 250여 명이 참여 중이며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비롯한 불교행사 봉사와 템플스테이, 학교 내 포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부산불교聯 · 총연합신도회 신년하례회

2030부산엑스포 유치협력 MOU 체결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6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불기 2567년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를 통해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승가와 재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부산 불교 중흥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발원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내빈소개 △신년하례 △2030부산엑스포 MOU체결 △공로상 시상 △신년사 △격려사 △내빈축사 △축가 △축하떡 나누기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정사, 마나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부산지역 각 종단 대표 및 부산시구 · 군 연합회 회장단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임원진 스님 등 여러 대덕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서병수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 불교계 지도자 및 부산시 각 행정기관 대표자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은 신년사에서 "우리 모두는 불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동시에 부산이라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원력은 곧 불교의 중흥을 이루고 부산의 지역발전을 성취하는 것"이라며 "그간 부산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온 여러 대덕스님들의 정신을 받들어 한국불교중흥에 앞장서는 부산불교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박수관 총연합신도회장은 "승가와 재가 할 것 없이 현실을 되돌아보고 역할과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일반 시민을 감동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진정한 수행자 정신으로 종교적 본분을 다해 사회적 고통과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가 되자"며 "저희 불자들은 불교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각 종파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사찰이 참기도 도량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부산발전과 화합에 힘써온 부산불교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부산불교계와 부산시가 '2030부산엑스포 MOU체결식'을 가지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부산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와 남다른 열정으로 각종 신행 활동으로 정진한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이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운사, 혜욱 대선사 20주기 추모다례재

서칠교 작가, 학생 등 일해장학금 수여



부산 송정 대운사(주지 주석)는 1월 7일 경내 법당에서 일해당 혜욱 대선사의 원적 20주기를 추모하는 '일해당 혜욱 대선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 성정 스님(前 법주사 수정암 감원), 진범 스님(문경 봉암사 주지), 주석 스님(대운사 주지), 일해 선사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박대건 다라니회 회장, 최대경 쿠무다 이사 등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행장소개 △장학금 수여 △인사말 △추모사 △추모 법어 △추모 공연 △사홍서원 등으로 이어졌다.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평생을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며 부족한 저희 후학들을 이끌어주셨던 은사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0년이 됐다"며 "다례재를 맞이하여 조금 더 옷깃을 여미고 조금 더 정진하며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해를 맞아서 이 도량에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발원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마음의 합장을 올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선 스님은 추모 법어에서 "일해 스님의 전법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불교에 있어서 새로운 포교 바람을 일으키는 주석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선사께서 열반에 드시고 20년이 흐른 지금, 선사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며 "지금 소소히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을 붙잡고 가는 것이 불심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진정으로 선사를 만나는 길"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일해당 혜욱 대선사의 유지를 이어 조성된 '일해 장학금'은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콘서트홀 부처님과 대운사 법당 내 해수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한 서칠교 작가와 초 · 중 · 고학생 등 총 5명에게 전달됐다. 이어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와 바리톤 성승욱 씨의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일해당 혜욱 선사는 1931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 1949년 속리산 법주사 수정암에서 쾌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평생 수좌로 정진했으며 2001년 경남 합천 해인사 고불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선사의 상좌인 주석 스님은 지난 2019년부터 혜욱 대선사의 추모다례재를 봉행해 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성사 주지 게시 소남 걀첸 스님 라뙤사원 제7대 방장에 임명



티베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구랍 30일 인도 보드가야에서 한국티베트불교사원 광성사 게시 소남 걀첸 주지 스님을 남인도 라뙤사원(Rato Dratsang) 제7대 방장으로 임명했다.

광성사는 1월 8일 광성사 법당에서 게시 소남 걀첸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취임법회는 등공양으로 시작해 달라이라마께 올리는 만다라 공양, 기도문 낭독, 법문 및 라뙤사원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문 후 신도들은 티베트 카다(Khata, 흰색천)를 게시 소남 걀첸 주지 스님의 목에 걸어주며 축하했다.

소남 스님은 "남인도 라뙤사원은 1000여 년 동안 오랜 전통을 이어오며 현재 130여 명의 대중스님이 공부하고 있는 대가람"이라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며 방장으로 임명받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포교하라는 말씀을 받들어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뙤 사원은 14세기 중앙 티베트에 창건된 겔룩파의 주요 사원이다. 매년 겨울 한 철 동안 티베트 전역의 스님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불교 논리학을 연찬하고 대론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문드고드에 사원이 재건된 후 달라이 라마 존자가 직접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사원 중 하나로 겔룩파 내에서 중요한 사원이다.

게시 소남 걀첸 스님은 1971년 티베트 라싸에서 태어나 1986년에 인도로 망명하고, 인도 남부 라뙤사원에서 출가해 달라이 라마 존자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데뿡사원에서 5대 경을 수학하며, 1992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존자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1995년부터 3대 사찰인 쎄라 · 데뿡 · 간덴사원에서 게시 학위 공부를 시작하여 2000년에 5대 경 중 인명학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 게시 하람빠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10년 간 라뙤사원에서 인명학, 반야학, 중관학 등을 강의하며, 2001년 규뙤 밀교사원에서 밀교를 수학하고, 2004년에 밀교 시험을 통과해 낙람빠 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부산 광성사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해 〈람림(보리도차제론)〉과 〈입보리행론〉 등 여러 경론을 강의하며 티베트불교를 전하고 있다.

현재 게시 소남 걀첸 스님은 능숙한 한국어로 나란다 전통의 불교 교학을 2044회에 걸쳐 강의했으며, 해당 법문은 유튜브 채널 '광성사 한국티베트불교사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고향기롭게 박수관 회장 자비나눔

유기농 백미 10kg 2260포 기부
고향 여수에 1억 5천만 원 기부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YC TEC회장)은 1월 6일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설맞이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박수관 회장은 총 7000만 원 상당의 유기농 백미 10kg 2260포를 부산진구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진,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관계자를 비롯해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이 참석했다.

박수관 회장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부라고 내놓은 것이 너무 미미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쌀 한 톨 한 톨이 모여서 한 가마가 되듯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결실을 이룬다. 저의 작은 기부가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기부문화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런 자리가 많이 이뤄져서 사회기부활동이 보편적으로 이뤄진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은 "2018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명절 때마다 저희 구청에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박수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설을 맞이해 소외된 곳 없이 두루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부산진구청을 통해 부산진구 내 각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 2260세대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여수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장학금과 환우 수술비, 사회복지성금 등 40년 이상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계묘년 안전기원 사천왕재 봉행

1월 6일 천왕문서
새해 복덕과 안전 기원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불기 2567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천왕문에서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2010년 12월 방화로 소실된 천왕문을 새롭게 불사한 후 매년 화재예방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있다. 범어사는 2012년 3월 천왕문 완공 후 매년 음력 12월 보름, 저녁 예불 후 사천왕재를 봉행했으나 올해는 사시예불 시간에 맞춰 진행했다. 오전에 봉행된 사천왕재에는 불자뿐 아니라 오고 가는 관광객 및 참배객이 함께 합장하며 안전한 부산과 행복한 계묘년의 새 출발을 기원했다. 사천왕재에는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불공과 주지 스님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보운 스님은 "그동안은 밤에 사천왕재를 봉행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사시예불 시간에 맞춰 불공을 드렸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복덕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광명사, 계묘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포교에 주력하는 한 해 소망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월 8일 지관전에서 2023년 계묘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거창 창덕사 주지 갈웅 스님, 향전 스님, 이재동 신도회장, 하진홍 신도부회장, 신행단체 대표와 회원 등 4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신년하례법회는 광명천태차문화보존회 소속 불자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갈웅 스님의 인사말, 춘광 주지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춘광 스님은 "새해 첫 신년법회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감사하다. 이는 바로 불자 여러분들의 불심이 증명된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불자가 갈수록 줄고 있어 미래불교가 걱정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와 청년포교에 힘쓰고, 가족 포교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 또 매달 한 명씩 포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광 스님과 이재동 신도회장은 신년하례법회에서 신도로 등록한 신도 5명과 생일을 맞은 35명의 불자에게 장미꽃과 불교 서적을 선물하고 축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 동안거 대중공양

1월 10일, 대중공양 100인 분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포교사단 부산)이 1월 10일 범어사에서 '2023년 동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 회향'을 기념하는 동안거 대중공양을 올렸다.

포교사단 부산은 80일 간 동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을 이어왔으며 1월 15일 회향한다. 법화경 동안거에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원 630여 명 40개 팀 전원이 동참했으며 〈법화경〉 10권 전권을 독송했다. 동안거 기간 동안 포교사단은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았고 매년 수행 기간 동안 대중공양을 올리고 있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단장을 비롯한 정분남 자문위원, 주태돈 부단장, 최정자 총괄팀장, 강태산 사무국장과 김현이 범어사 포교사회 회장과 임원들이 동참했으며, 공양 메뉴는 겨울철 특식인 찐빵과 김밥, 유부초밥, 과일 등 100인 분을 마련했다.

송재린 단장은 "동안거 기간 동안 포교사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대중공양으로 회향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수행하고 실천해 행복한 포교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